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미 고용 시장 회복될 듯
- WSJ: 연준 관리들,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날 수 있다” 신호

[미국 금융]

- Bloomberg: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국채 랠리

[중동 위기]

- Bloomberg: 트럼프, “호르무즈 계속 막으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위협
- Bloomberg: 연방재무장관, “미국, 호르무즈 통제권 되찾을 듯”

[오일]

- YahooFinance: 중동 분쟁 5주째, 오일 상승할 두 가지 이유
- WSJ: 프랑스 대형 은행 “오일 배럴당 1백50불까지 갈수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오일가 상승해 우편 배송비 상승에 일부 항공편 축소
- Bloomberg: 도요타, 중국 전기차와 경쟁 속에 판대 하락
- Bloomberg: 중국 전기차 BYD, 올해 수출 예상보다 15% 초과할 듯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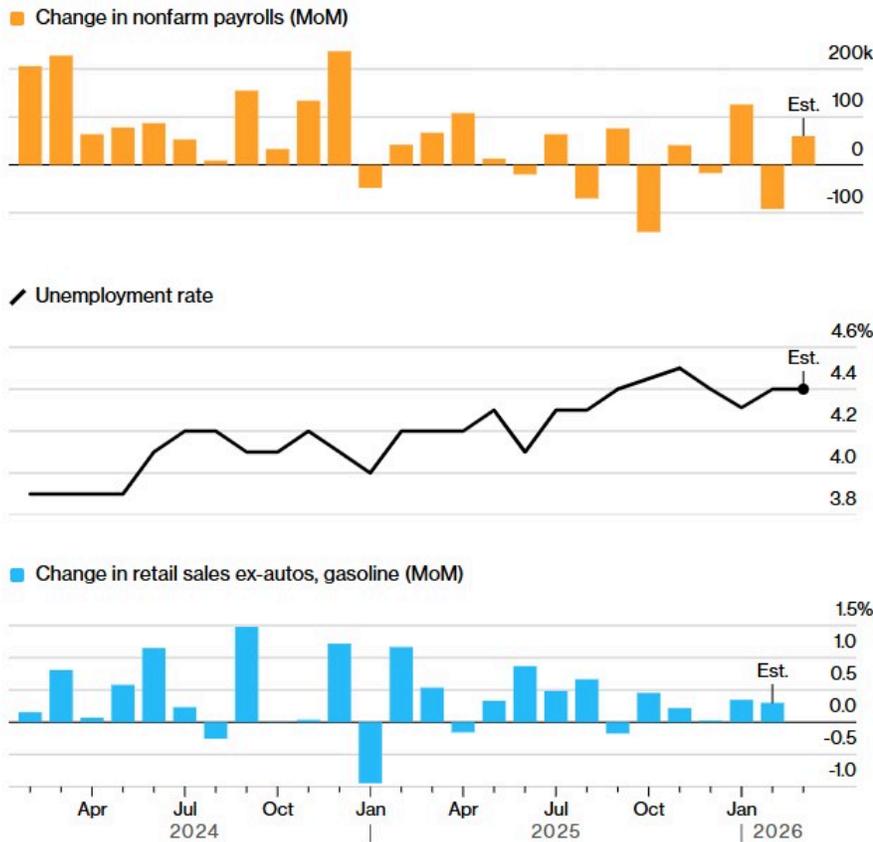
Bloomberg: US Job Market Likely Thawed Out This Month After February Chill

3월 미 고용 시장 회복될 듯

- 이번 주 3월 미 고용 수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에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실업률은 4.4%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비농업 고용은 지난해 5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소비 수요의 지속성과 완만한 고용 증가 여부를 지켜보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US Payrolls Probably Rebounded in March

Soft job market, inflation concerns risk weighing on otherwise resilient consumer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nsus Bureau, Bloomberg surveys of economists

기사

WSJ: Fed Officials Signal That Rate Cuts May Be Over

연준 관리들,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날 수 있다” 신호

-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이제 금리에 대해 “양방향(two-sided)”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경제의 리스크 가운데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 그러나 특히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끝났을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장기 금리는 크게 상승했다.
-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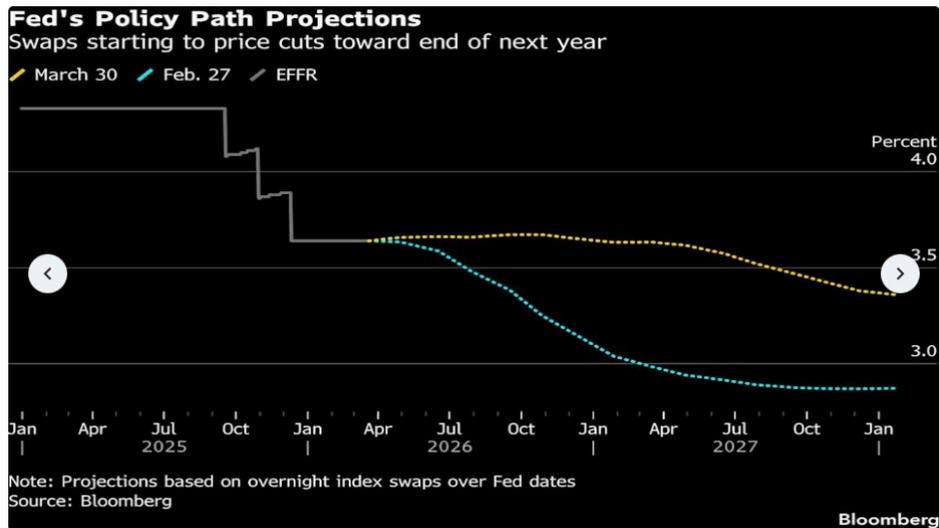
[미국 금융]

Bloomberg: Government Bonds Rally Around the World on Slowdown Concerns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국채 랠리

- 중동 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각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 가격이 상승했다.

- 미국 국채는 영국·일본 국채와 함께 상승했는데, 이는 급등하는 유가가 장기적인 연료 부족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외면받던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 최근 채권 상승은 유가 급등과 금리 인상 우려로 이어졌던 매도세 이후 나타난 것으로,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와 관련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3.86%, 10년물 금리는 4.37%로 하락했다.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Trump Renews Threat on Iran Energy Sites If Hormuz Stays Closed

트럼프, “호르무즈 계속 막으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위협

- 트럼프는 양국 협상이 정체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힐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Kharg 섬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다시 위협했다.
- 트럼프는 또한 이란의 새 정권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직접 협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줄이며 배럴당 약 11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사상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계속 공격했고, 이란은 걸프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기사

Bloomberg: Bessent Says US to ‘Retake’ Hormuz Strait Control, Eyes Escorts

연방재무장관, “미국, 호르무즈 통제권 되찾을 듯”

- 미 연방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화물선의 통행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되찾고, 미군 또는 다국적 호위를 통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은 하루 약 1천만~1천2백만 배럴의 공급 부족 상태이며 이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도 비축유 방출은 하루 약 4백만 배럴 규모로 부족분 보충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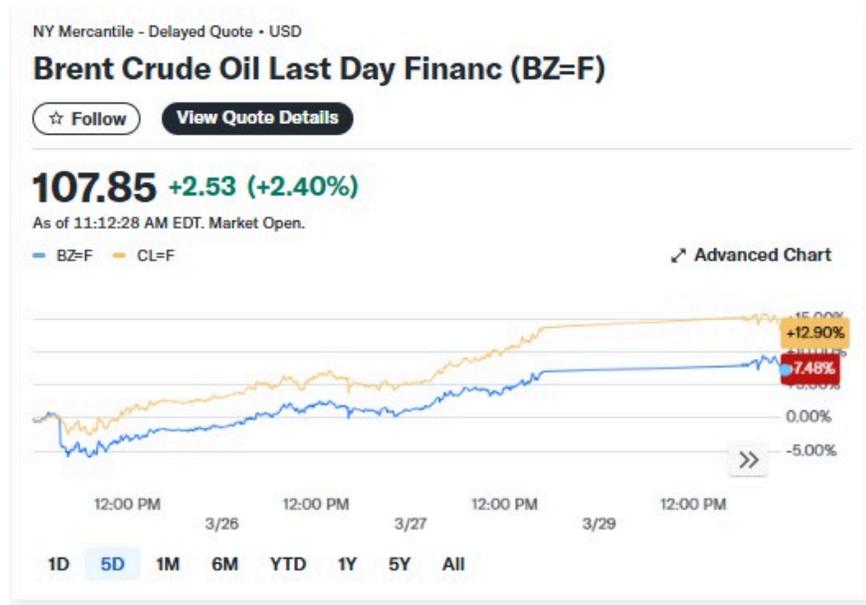
기사

[오일]

YahooFinance: The 2 reasons oil prices are surging as the Iran War enters its 5th week

중동 분쟁 5주째, 오일 상승할 두 가지 이유

-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약 \$115~\$117 수준으로, 3월 한 달 동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 유가가 오르는 주된 이유는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경로로 계속 위협에 처할 경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
- 둘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공포 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화하고, 후티 반군 등 주변국의 공격 가능성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WSJ: Is \$150 Oil Next? It's Possible, SocGen Says

프랑스 대형 은행 “오일 배럴당 1백50불까지 갈수도”

- 프랑스 대형은행 Societe Generale 분석팀은 4월 브렌트유 평균이 배럴당 \$125, 상황에 따라 \$1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흥해 남단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Bab El-Mandeb) 해협이 봉쇄될 경우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분석팀은 원유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분쟁이 곧 끝나더라도 생산 제한과 항만 병목 등으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봤다.

- 연간 전망은 4월 이후 차질이 크지 않으면 5월 중순부터 재고가 회복되어 브렌트유 연말 가격은 80불로 예상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New fees, fewer flights: Higher fuel prices pinch consumer budgets beyond the gas pump

오일가 상승해 우편 배송비 상승에 일부 항공편 축소

- 미국-이란 전쟁이 5주째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높은 유가에 대응하고 있다. 브렌트유 5월말 가격은 3월 한 달 동안 55% 상승해 1998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했고, 미국 유가는 49% 상승했다.
- US Postal Service는 4월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소포와 익스프레스 배송에 임시 연료 할증 8%를 부과할 계획이며, FedEx와 UPS도 연료할증 요금을 인상했다.
- United 항공사는 연료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은 일부 항공편을 줄일 예정이다.

기사

Bloomberg” Toyota Sales Dip as Japan Automakers Brace for Iran Impact 도요타, 중국 전기차와 경쟁 속에 판매 하락

- 도요타 자동차의 2월 판매량은 806,905대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일본 내 수요 부진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13.9% 감소했고, 생산량은 구정 설 연휴 일정 영향으로 11.5% 줄었다.
- 또한, 도요타의 중국 합작법인은 2월 시트 결함으로 인한 충돌 위험 때문에 56만 대가 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리콜할 예정이다.

기사

Bloomberg: BYD Signals It's Confident Exports Will Beat 2026 Target By 15%

중국 전기차 BYD, 올해 수출 예상보다 15% 초과할 듯

- 세계 최대 중국 전기차 회사 BYD 는 올해 수출이 이전 목표보다 약 15%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 회사 경영진은 참가자들에게 2026년 수출이 150만 대에 달할 것이라며, 1월에 발표한 1백30만 대 목표를 웃돌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또한 BYD는 2027년부터 중국 외 지역에도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신형 블레이드 배터리와 빠른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5,500.40	+333.0	+0.74%	📈
US 500	6,385.60	+16.9	+0.26%	📈
Dow Jones	45,495.29	+328.65	+0.73%	📈
S&P 500	6,387.88	+19.03	+0.30%	📈
Nasdaq	20,935.23	-13.12	-0.06%	📉
S&P 500 VIX	29.97	-1.09	-3.51%	📉
Dollar Index	100.392	+0.410	+0.41%	📈

미국 USD 1,517.50 ▲2.00 +0.13% 03.27	유럽 EUR 1,740.27 ▲1.32 +0.08% 03.27
일본 JPY 951.32 ▼0.08 -0.01% 03.27	중국 CNY 219.35 ▲0.19 +0.09% 03.27
유로/달러 1.1508 ▼0.0030 -0.26% 03.27	영국 파운드/달러 1.3256 ▼0.0035 -0.26% 03.27

원전고시환율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517.50 1,517.50 원

미국 USD 1,510.00 ▲2.00 +0.13% 03.27	유럽 EUR 1,741.33 ▲1.32 +0.08% 03.27
일본 JPY 944.37 ▼0.08 -0.01% 03.27	중국 CNY 218.24 ▲0.19 +0.09% 03.27
유로/달러 1.1528 ▼0.0030 -0.26% 03.26	영국 파운드/달러 1.3327 ▼0.0035 -0.26% 03.26

원전고시환율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510 1,510 원